



내 용

성도시	7
소지구	41
카를다리	57
구 도 시	67
유대인 마을	85
신도시	95
옛 성문들 앞	103

몰다우 위로 소지구와 황제성 전망.



성도시안의 로레토 골목.

성 도 시

흐라드学问이라 불리어지는 옛 황제성과 그 성에 인접해 있는 성도시는 몰다우 왼쪽 강변의 길게 뻗어있는 바위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체코 언어로 성을 의미하는 ‘흐라드’는 그 모든 인근지역의 이름을 파생하게 한다. 이 시지구에는 광대한 성지대 외에 별장 ‘벨베데레’와 함께 한 왕실의 정원 그리고 수도원 슈트라호프를 포함하여 이전 성 근교의 도시들 역시 여기에 속한다. 왕궁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 호화로운 지역에 나라의 가장 권력있는 자들이 황제 폐하에 대한 눈높이에서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들을 지었었다 : 마르티니츠, 체르닌과 롭코비츠, 로젠베트, 슈바르첸베트 그리고 디트릭히슈타인 가족들이 바로 그 위에서 살았다. 그후 17세기에는 성도시 안에 건축할 장소가 드물게 되자 귀족 건축업자들이 성의 아래쪽에 있는 소지구로 비켜났다.

황제성의 시작은 초기 크리스챤인 프르제미슬 군주 보지보이 1세가 그의 거주지를 레비 흐라데츠에서 프라하로 이주한 (875), 9세기로 되돌아간다. 흙더미와 개천으로 방어했던 나무성안에 주후 890년 성 동정녀에게 봉헌하는 석조교회가 세워졌다. 보지보이의 아들 브라티슬라브 1 세는 주후 920 년에 오늘날의 성 게오르그의 성당 지점에 다른 또 하나의 성전을 세우게 했다.

볼레슬라브 2세의 통치아래 독립된 프라하의 주교관구를 창립한 후(973)에 프라하 성은 이제 주교의 자리가 되었다. 14세기에 프르제미슬 오타카르 2세 때부터 폐쇄되어가는 성을 룩셈부르크의 황제인 카를 4세가 성 로마제국의 중심지로 지정했었다. 주후 1344년 프라하가 대주교 교구로 등급하자, 그는 고딕 건축양식 대사원인 비투스 대성당을 황제성의 중앙에 건축하게 했다.

후스파 교도들의 전쟁 결과로 수년동안 쇠퇴한 성에 15세기의 후반에는 야기엘론의 왕들이 1483년에 있었던 프라하 반란 사건 후 시내의 무방비된 왕궁에서 더이상 안전함을 느낄수 없음으로 인해 다시 호화로운 삶과 함께 성으로 들어왔다.

1526년부터 다스렸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정원을 만들고 르네상스 스타일로 별장 ‘벨베데레’를 건축했으며 그 황량했던 성은 점차로 하나의 쾌적한 군주의 자리로 변화되어 갔다.

1541년의 소지구와 성도시를 황폐케 한 도시화제는 그당시 아직 중세기의 도시 풍경에 아주 깊은 돌파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결과로 필요한 증축과 재건축은 그당시 이미 예고된 르네상스 양식이 결국 성도시 내에도 발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성도시에 있는 주거용 건물의 전망, 배경에는 라우렌치산의 경사면 그리고 슈트라호브 수도원. 정면 오른쪽 계단을 올라가면 성도시의 구 시청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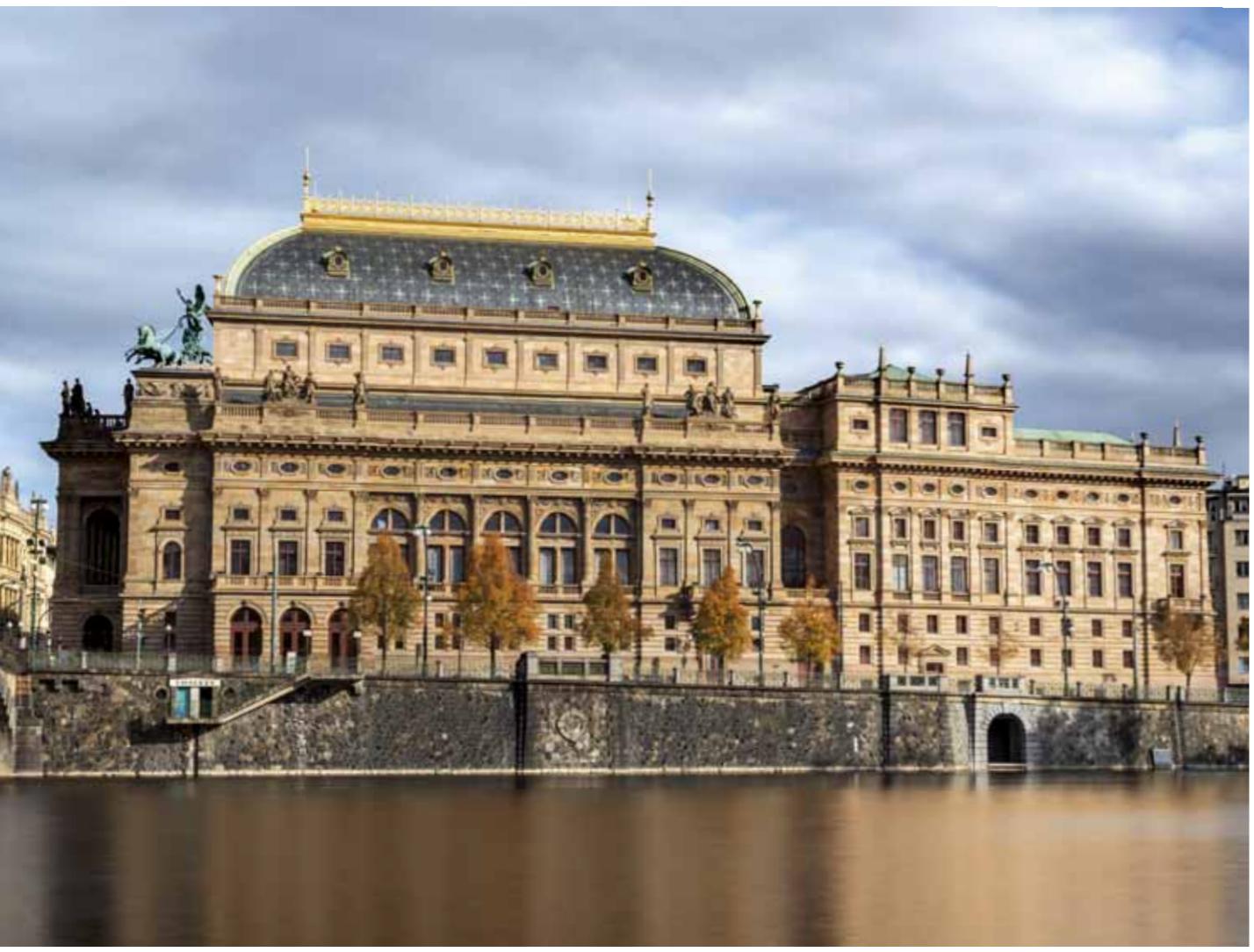
1143년에 올뮈츠의 주교 인드리히 츠딕은 도시의 성문앞 라우렌치산의 끝자락에 한 수도원을 봉헌했다. 수백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개축공사와 확장공사 후 프레몽뜨레 수도원 슈트라호프는 가장 중요한 영성 센터 중 하나로 그리고 나라의 가장 부요한 수도원, 학문과 예술의 장소로 자라갔다.



위 왼쪽 : 사도시계(오를로이)가 중세기에 지구를 중심으로한 세계관을 반사하고 있다: 행성이 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위 오른쪽 : 구도시 광장위에 있는 출판자와 서점주인인 알렉산더 스토륵흐의 집.

왼쪽면 : 구시가지의 전망으로 중앙에 테인성당, 오른쪽에는 고딕 양식의 시청사 탑.



위: 약 천명의 관객들을 수용하는, 순수하게 국내의 건축자료로 세워진 국립 극장은 프라하의 가장 화려한 네오 르네상스 건축물들 중에 속한다.

오른쪽면 : 두 원통형의 건물 춤추는 집, 농담으로 진저{로저스} 와 프레드{아스테어}라고도 불리어지는, 이 건물은 그 부근에 있는 폐쇠에 가까운 벨-에포크-건축에 대조를 이룬다.

